

본문 : 요나 1 장 4-10 절

제목 : 잠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1.

지난 주 내용을 잠시 리마인드 해 볼까요?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밋대이죠. 아밋대의 뜻은 무엇이죠?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정체성은 진리를  
따르는 자의 아들입니다. 그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비둘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를 따르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도시로 가서 예언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나요?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였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도시는 어디였죠? 다시스라는 도시이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죠. 요나는 뱃삿을 내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찌자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지난 목요일 로체스터에 토네이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두 지하에 대피하라는  
경고였죠. 저도 집에 와서 아이들과 맨 아랫층으로 피신했는데 아이들이 <Twister>라는  
토네이도 영화를 보더라구요. 다행히 로체스터에 토네이도가 오지 않았지만 영화  
속에서는 바람의 힘이 어마어마 하더군요. 자동차가 날아가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바람의 힘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요나가 탄 배에도 풍랑이  
불어 닥칩니다. 4 절 말씀은 **“주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다”** 라고 전합니다. 선원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 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불어 온 바람이 생각보다 심각했는지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원래 배를 무겁게 해야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려 배가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는 무역선이었을 겁니다. 무역선의 물건들은  
선원들의 밥줄이었을 거구요. 그러나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에 과감히  
을 cargo 를 바다에 던지는 결단을 한 것이죠.

2.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요나는 배의 아랫칸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왜 자고 있습니까?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가만히 눈 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았겠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온 현실을 어떻게든 잊고 싶었겠지요.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자기 머리만 쳐 박으면 안 보이겠지 하는 것이랑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잠을 잔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단지 현실을 외면할 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시간만 끄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면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 낫습니다. 선장이 아래칸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깨워서 현실을 직면하게 돕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뭐 하는 놈이야?) 잠을 자고 있다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 줄 수도 있잖소. (당장 무릎 꿇고 기도 안 해?)”

벳사람들은 문제의 뿌리를 찾아 뽑아내야겠다 생각으로 제비를 뽑자 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였죠.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벳사람들은 이제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8 절 말씀을 보면 선원들이 이곳 저곳에서 질문을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어떤 항구에서 올라탄 거지? 여권 보여줘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보자.” 요나는 여권 대신에 자신의 신앙을 벳사람들에게 공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यो.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यो.” 그런 후 자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배에 탔고 무슨 이유로 도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선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요나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죠. 감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그들의 상식에서 요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릅니까?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있다구요?” 그들이 요나에게 **“어찌자고 이런 일을 했소?”**라는 말의 속 뜻이겠죠.

3.

여러분은 요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니느웨에 가기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무리 예언자라지만 죽어도 가기 싫은 곳이 있고 죽어도 외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 집요하게 예언자를 끝까지 따라붙는 하나님이 이해되시나요? 4 절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점잖게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다**’가 맞습니다. 5 절의 선원들이 바다에 짐을 던졌다 할 때 쓰인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요나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의지와 예언자의 의지가 충돌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애먼 뱃사람들만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이죠.

영국의 시인, Francis Thompson 은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The Hound of Heaven)”라 표현했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냥개에 비유한 것이죠. 특히 예언자를 향해서는 그 강도가 더한 것 같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신 거 같아요. 저는 목회에 뜻이 없던 사람입니다. 신학대학원 3 년 과정의 마지막 학기가 돼서야 목사가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스무살에 선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끼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목회하라 하면 도망갈까봐 선교사로 먼저 부른 거죠. 목사는 뜻이 없었지만 선교는 재밌더라구요. 교회에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간 중국 감숙성 의료선교가 계기가 되어 중국 땅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랑 결혼 했는데 다른 모든 선교지는 가겠는데 중국만큼은 싫다고 하더군요. 중국이 안 되면 중동 선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웬걸, 요르단과 IS 사이에 긴장감이 돌면서 교회에서 갑자기 요르단으로 못 보낸다고 선교지를 다른 곳으로 정하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때가 되서야 아내가 중국이라도 가겠다고 하더라구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중국 한족들 섬기려고 중국에 나갔는데, 3 년만에 한인교회를 맡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인 교회 섬긴지 1 년만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하시더라구요. 저를 목회자 만들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끈질기게 몰아가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여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외면하시거나 피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4.

사냥개처럼 끈질긴 하나님이시지만 요나도 만만찮습니다. 지난 주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태도에서 우리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것 같나요? 요나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구요? 9 장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섬기다라는 말의 뜻노트를 보면 '경외하는'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Yarah"라는 말인데 fear, afraid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The longest journey a man must take is the eighteen inches from his head to his heart."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18 인치의 여정이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라는 말이죠. 성경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멀리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끊임 없이 아는 바를 실천하고 믿는 바를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신앙이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손과 발로 실행해 옮기는 기나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요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애먼 사람들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요나가 그 배에 탔다는 것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면 좋은데, 가족과 이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기에 선택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요나의 이웃들이 오히려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일어나라는 뜻의 "Kum"이라는 명령이 2 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6 절에는 선장으로부터 요나에게 내려집니다. 여러분, 일어 선 사람이 사람 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아침마다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아들 셋 있지만 일어나기 힘들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작년부터 제 아버지께서 허리와 다리를 못 움직이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일어나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돌보시느라 어머니 마저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나이 들어도 걸을 수 있게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잘 못된 선택을 일깨워 주는 사람들은 다른 아닌 요나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뭐하냐고 그를 각성시키는 사람들은 요나의 이웃이었던 선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통해, 때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이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6.

깨어 있지 못하고 무감각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정신을 차리고 근본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통해 깨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싸인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근본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과 인생의 위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고 불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닥쳐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함이냐?”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이웃들을 통해 해오실 때 겸손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따라가지 않고 가슴과 발로 따라가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당당히 서 계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